

ISSUE BRIEFING

2020. 11. 10
Vol. 233

2020

ISSUE BRIEFING

연구진

황영모_산업경제연구부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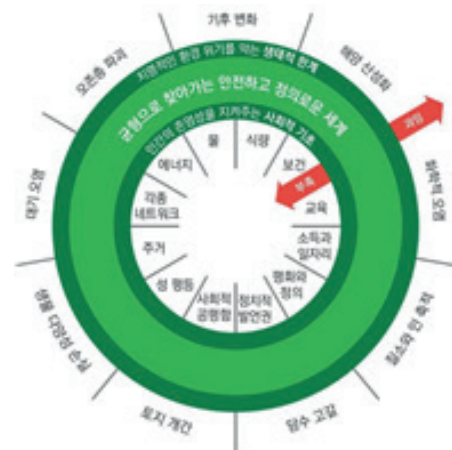
코로나19, '전환사회'를 향한 방향과 과제

CONTENTS

1. 코로나19, '전환사회'를 강조하다	02
2. '전환사회'의 의미와 방향	03
3. '전환사회'를 위한 실천사례	06
4. '전환사회'를 위한 대응과 방향	08

1. 코로나19, '전환사회'를 강조하다

-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는 단순한 감염병 유행을 넘어서 근본적인 성찰과 삶의 질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근대문명이 가져온 생태적 위기’에서 원인을 찾고 있음
 - 인간이 자연을 침범해 생태계를 파괴하니, 자연 속 동물 세계에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겨와 벌어진 것(최재천, 2020)¹⁾
 - 생태계 파괴는 기후변화를 강제해 기후위기로 생긴 모든 결과가 코로나19의 팬데믹을 생성하고 있다고 진단함(제러미 리프킨, 2020)
- 전염병으로 세계경제가 멈춘 까닭은 ‘효율성에 의존하는 세계화 문제’에 있는데, 단기 이익에 의존하여 장기적으로 ‘탄력성’을 잃어 전체가 타격받고 인프라가 붕괴하게 되는 것임²⁾
- 우리 사회는 ‘평소와 다른없는 예전의 일상(business as usual)’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임
- 우리가 대할 미래는 예측 불가능한 ‘단순미래’가 아니라 예측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어, 우리가 미래를 대하는 방식(결단)은 ‘의지미래’가 되어야 함(홍기빈, 2020)
 - ‘화학백신(의학)과 행동백신(사회적 거리두기)’을 넘어 ‘생태백신(생태계 보호와 보전)’의 강조³⁾는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주고 있음
 - ‘좌초자산’인 화석연료 위에 있는 우리는 기후비상에 대비한 새로운 대응전략과 로드맵을 짜야함(최재천, 2020)
- 밖으로는 생태적인 한계를 넘지 않으면서, 안으로는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는 구조 전반의 ‘거대한 전환’이 절실함(생태적지혜연구소, 2020)
 - ‘생각보다 깊은 수준으로 변화’를 전제로 하는데, 단순히 재생에너지에 더 투자하고, 고기를 덜 먹고, 전기 자동차를 운전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님(한운정, 2019)
 - ‘이익은 사유화하고, 비용은 사회화’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하며, 정치는 생명주의로, 경제는 공유경제로, 교육은 생명교육으로 전환을 실천해 나가야 함
- 코로나19를 통해 강조되는 이른바 ‘전환사회’는 ‘과정을 통해 실체’를 만들어 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자료 : 케이트 레이워스(2018), '도넛경제학'.

1) 세균은 독자적 증식이 가능한 생명이지만, 바이러스는 스스로 증식을 못하므로 다른 유전체에 올라타 숙주가 증식할 때 따라서 증식
 2) 이에 대해 홍기빈(2020)은 '산업의 지구화, 생활의 도시화, 가치의 금융화'가 생태적 환경에 대한 무한적인 착취를 전제로 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최재천 외(2020), '코로나 사피엔스'를 참고
 3) 자세한 내용은 최재천(2020), '호모 심비우스'를 참고

- 이 과정은 '선형이 아닌 순환'의 시간으로⁴⁾, 무엇보다 범 지구적 사고에 기반한 지역적 실천을 강조되며, 지역단위로 삶을 꾸리고 실험하는 커뮤니티가 중요할 것임
- 이 글은 코로나19로 강조되는 전환사회의 의미와 실천사례를 검토하여, 지역에서의 대응방향과 과제를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전환사회'의 의미와 방향

(1) 코로나19가 불러온 전환사회로의 기회⁵⁾

- 코로나19 팬데믹의 확산은 세계적으로 삶의 변화를 강제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감염병 확산의 충격으로부터 원상태로 돌아올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의문이 있음
- 이제 '사회적 회복력, 생태적 회복력, 경제적 회복력'을 위해서는 하드웨어적 충격에 대비한 소프트웨어적 관리가 필요하며 '전환사회'의 논리가 바로 여기에 있음
- 첫째, 코로나19는 새로운 도시 시스템을 시험할 기회를 던져주었으며, 이를 계기로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지역을 지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동자제 권고 등이 이뤄지고 있어 지역 내는 물론 지역 간 사람과 물자 이동이 감소하면서 평소와 다른 한적한 현상을 목격하고 있음
 - 모든 활동이 감소하고 다소 느려진 지역(도시)은 당연하던 '복잡하고 바쁜 회색의 공간'이 아닌, 파란 하늘과 신선한 공기, 여유마저 흐르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음
 - 모두가 같은 상상과 경험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모습과 다른 지역의 현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더 나은 지역(도시)의 모습을 상상할 기회를 준 것임
- 둘째, 코로나19 원인으로 꼽는 지구의 생태적 용량 초과에 따른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지구의 안식년과 자연의 일부로서의 인간을 자각할 기회가 되고 있음
 -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면서 교통·경제 전반의 생산활동이 위축되면서 지구 대기에 온갖 유해한 가스를 뿜어대던 인간의 활동이 주춤했음
 - 인간의 활동이 위축되면서 자연의 순환과 자정활동이 왕성해진 느낌이며, 일부에서는 지구가 위기 상황에서 이른바 '안식년'을 갖는다고 표현하고도 있음
 - 자연의 일부인 인간은 생존을 위한 개발로 생태계를 붕괴시키는 경우가 많았고, 거침없이 팽창하던 상황에서 지구는 심호흡을 할 시간이 주어진 양상이라 할 수 있음

4) 파종을 위해 씨앗을 보관하는 농부의 시간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음

5) 이 내용은 강정목(2020.4)에서 정리

- 셋째, 코로나19로 바뀐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일과 생활의 시스템을 적용할 기회가 되고 있음
 - 비대면 관계를 상징하는 화상회의 등을 통해 동일한 경제유발 효과와 성과를 창출하고 투입되는 시간과 에너지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면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
 - 이러한 시스템적 변화는 소득은 물론 기득권의 이전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의 시스템 하에서 이를 구축하고 누리왔던 개인과 조직에게는 달갑지 않을 수 있음
 - 필연적 변화는 불가피한 현실을 통해 오기 때문에 변화와 충격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개인과 집단은 새로운 시대에 상황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음
- ‘위기(危機)’라는 단어는 ‘위험(危險-Threat)’과 ‘기회(機會-Opportunity)’가 합쳐진 말로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을 통해 우리 사회가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아가는 전환사회의 기로에 놓여 있음을 강조함
- 코로나19 위기가 불러온 3가지 역설적 기회에 주목하여 ‘전환사회’의 방향을 찾아야 함

(2) 전환사회의 방향과 과제

- 전환사회에 주목하는 배경은 화석연료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피크오일(peak oil)과 생태계 파괴에 따른 기후변화(climate change) 등의 위기에서 찾을 수 있음
- 사실 ‘기후변화와 피크오일’은 1가지 문제에 대한 2가지 원인인데, 이를 위한 해법도 2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Hopkins, 2008)

〈전환의 개념: 한 가지 문제의 두 가지 측면의 해결방향〉

피크오일 peak oil	기후변화 climate change	회복력 증진과 탄소배출 저감
·석탄액화 ·가스액화 ·시추관련 규제완화 ·바이오연료 생산확대 ·타르샌드, 비전통 석유개발 ·자원 민족주의와 비축 * 허쉬 보고서	+	·재지역화와 회복력 증진 ·에너지 할당량 거래 ·분산형 에너지 인프라 ·재기술화 ·로컬푸드 생산(푸드마일리지) ·에너지 하강행동계획 ·지역통화 ·지역 의약품 효능활동

자료 : Hopkins(2008); 이유진(2013)에서 재인용

- ‘전환사회’란 회복력 있는 지역(도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사회실험이며, 20년 후를 목표로 행동계획을 지금 세우고 적극 실천해 나가야 함을 강조함
- 특히 현재와 같은 인간의 경제활동이 지속되는 한, 지구는 생태적인 용량을 넘어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체계’와 ‘생활양식’의 전환이 강조되고 있음

코로나 19, '전환사회' 를 향한 방향과 과제

〈전환사회의 인식과 출발점〉

- ① 기후변화와 피크오일에 대처하기 위해 시급한 행동이 필요하다.
- ②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삶이 불가피하며 갑자기 닥쳐 대책을 수립하기보다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
- ③ 산업사회는 에너지 충격에 대처할 수 있는 회복력을 상실했다.
- ④ 우리는 함께 행동해야 하며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
- ⑤ 세계경제와 그 속에서의 소비 패턴과 관련하여 물리학의 법칙이 적용하는 한 유한한 체계 내의 무한한 성장은 불가능하다.
- ⑥ 지난 150년 동안 에너지 곡선의 정점에 이를 때까지 놀라운 독창성과 지능을 발휘해왔듯이 정점에서 하강하는 과정에서도 인간은 그 이상의 독창성과 지능을 활용할 수 있다.
- ⑦ 충분히 빨리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며 지역 공동체의 특별한 재능을 발휘하기 위해 창의성과 협동심을 이용한다면, 현재의 생활방식보다 지구에 부담을 덜 주고 더 연계되며 훨씬 더 만족스럽고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다.

자료 : 박용남(2015)

- 전환사회는 '사회혁신'을 지향⁶⁾하는데, 지속가능성 이행(sustainable transition), 다층적 접근(MLP, multi level perspective)으로 사회혁신 등이 이미 여러 곳에서 싹트고 있음(Avelino et al, 2014)⁷⁾
- 전환적 사회혁신은 사회 전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개별 사안에 대한 단기적 해결책은 미봉책이므로 지속가능성과 같은 전체적인 목표를 설정한 뒤 목적의식적으로 체계 차원의 변화를 추구함을 의미함(Avelino et al, 2014; 장훈교, 2017)
- 전환적 사회혁신은 사회혁신의 정치를 강조하며(Avelino et al, 2014),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의 조직 논리가 혼합되고 부문 간, 스케일 간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사회혁신은 흔히 혼종적인 형태로 진행됨(Pel and Bauler, 2014)
- 인구변동·경제위기·환경위기 등 다차원적 위기에 대응하는 다양한 실험들이 연결된 전환사회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통의 인식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전환사회는 필시 문명의 생태화를 통한 생태적 전환을 의미함

6) 이 내용은 홍덕화(2018)에서 정리

7) 대표적인 전환적 사회혁신은 EU가 지원하는 TRANSIT(Transformative Social Information Theory) 프로젝트를 통해 정식화됨

3. '전환사회'를 위한 실천사례

(1) 영국 토트네스 전환도시 사례⁸⁾

- 지역 에너지에서 시작하여 전환사회 가치를 지역 전체로 확대·실천하는 대표적 사례로 영국 토트네스가 '전환도시' 정책을 추진하게 된 사회적 배경은 지역적 절박함에 근거하고 있음
 - 토트네스는 인구 2만 5천여명이 사는 전형적 농촌 중심 지역으로 18세기에는 낙농업이 우세했으나 이후 쇠퇴의 길을 걸어 왔음
 - 1986년 유럽을 강타한 광우병으로 낙농업은 큰 타격을 입었고, 산업적 방식에서 벗어나 전통적 낙농방식으로 돌아가자는 '자연주의 운동'으로 활력을 찾기 시작함⁹⁾
 - 이후 2006년 전환도시 운동을 선도하던 롭 홉킨스가 주도한 교육 프로그램¹⁰⁾을 통해 지역차원의 행동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음
- 토트네스 전환도시(Transition Town) 프로젝트는 석유 생산이 늘어나지 않는 피크오일(Peak Oil) 시대를 대비하여 '먹거리, 주택, 에너지, 돈, 개인적인 삶' 모두를 전환하자는 실천 행동계획임
 - 전환도시 운동 실행 조직으로 2006년 'Transition Town Totnes(이하 TTT)'¹¹⁾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실험에 돌입함
 - UN과 국가 차원의 해답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 공동체가 책임있게 나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자는 의도임
- 토트네스 전환도시 사례의 핵심은 '토트네스 에너지 하강 행동계획 2030'을 통해 실천되고 있음
 - 1인당 연간 석유 사용량인 9배럴을 1배럴로 감축하기 위한 계획표로 2009년부터 주민들과 함께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에 완성함
 - 계획의 수립 과정에 지역사회의 35개 주민 조직이 참여하였고(27회 공청회), 도시 중심지역 주민의 12.3%(800여명)가 직접 참여
 -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에너지 사용량을 1/2로 줄이고, 그 중 1/2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화석 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행동계획임
- 토트네스 전환도시 실천행동은 다운타운 곳곳에서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생산을 넘어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여 추진되고 있음
 - 에너지와 관련된 '빌딩·주택·교통·경제·일자리·먹거리·건강·복지·문화예술·행정' 등에 걸쳐 전환활동 모임과 프로젝트를 추진되고 있음

8) Totnes City는 영국 남서부의 데본지역에 위치한 도시, 이 내용은 이유진(2013)에서 정리한 것임

9) 토트네스 자연주의 운동은 먹거리에서 시작해 지역 순환형 유기 농산물을 생산/소비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만들. 외부 경제위험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경제를 만들고 광우병이라는 위기가 시민을 변화시킨 것

10) 'Skilling up for power down'이라는 10주간 교육과정으로 먹거리, 주택, 에너지, 돈, 개인생활 등의 전환에 대해 학습하고 토론을 진행

11) 전환운동을 이끌 센터로 시민자치조직 성격. 지역 자선사업가와 기업에서 후원을 받고 컨설팅 서비스 제공, 교육 프로그램 운영, 모금활동 등으로 재정을 꾸리고 있음

코로나 19, '전환사회' 를 향한 방향과 과제

- 특히 지역 먹거리를 통해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키우고, 유기농업·수공예·지역화폐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고 있음
- 교통의 대안으로 자전거 워킹그룹과 닥터 바이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와 교육을 통해 전환도시의 기반을 다져 가고 있음

〈토틸네스 에너지 하강 실천 워킹그룹과 전환 프로젝트〉

워킹그룹	전환 프로젝트	워킹그룹	전환 프로젝트
에너지	· 전환거리 프로젝트 · 태양열 온수기 공동구매 · 재생가능에너지협동조합 만들기 ·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먹거리	· 텃밭공유 프로젝트 · 로컬푸드 가이드북-이용장려 · 너트나무 프로젝트(공동체 연대) · 씨드 시스터즈(종자, 다양성) · 푸드허브-온라인 직거래 · 푸드링크-생산자-소매상 잇기
빌딩 주택	· 따뜻한 데본만들기 · 지역개발계획 참여 · 생태건축 · 코하우징		
교통	· 교통계획에 참여하기 · 바이오연료 사용하기 · 자전거길 만들기 · 교통계획에 참여하기 · 바이오연료 사용하기 · 자전거길 만들기	건강 웰빙	· 공동체 건강텃밭 만들기
		문화 예술	· 지속가능한 예술가 · 문화행사(인식과 재미증진)
경제 삶터	· 녹색에너지 프로젝트 · 에너지 고효율 전구교체 · 지역화폐 활동 · 지역기업 지원	마음 영혼	· TTT 활동가 회복력 지원 · 마음과 영혼 워크숍 · 내적 전환과 생태적 성찰
		교육	· 마이스토리-세대간 소통 회상 · 전환도서관-관련 자료 이용

자료 : Transition Town Totnes(2010); 이유진(2013)에서 재인용

(2) 미국 포모나 공감도시 사례¹²⁾

- 미국 포모나시는 전환사회에 맞는 공감문화를 핵심가치로 ‘공감도시’ 정책으로, 2018년 ‘포모나 공감선언(Compassionate Pomona Proclamation)’¹³⁾ 발표하고 공감 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공감’에 주목한 이유는 현실적 문제들의 실질적 출발점은 부익부 빈익빈을 강제하고 자원을 과소비하며 전체적인 공익보다는 개인의 사익을 위해 구성된 세계경제 시스템의 반성(공감)에 있음
 - 포모나시는 사회를 전환사회로 이끌 공감적 시스템과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도시와 공동체에도 공감능력이 있음에 주목한 것임
 - 포모나시의 공감도시 선언은 ‘세계적 규모 공감하는 공동체, 미래로 가기 위해 공감하는 지역사회부터 시작하자’는 것으로 강한 지역 공동체는 전환사회의 기반이 됨에 주목하여 실천하고 있음
- 첫째, 포모나시가 공감문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노력은 ‘지역자생의 힘(Locally Grown Power, LGP)’ 정책에서 찾을 수 있음
 - ‘지역자생의 힘(LGP)’ 정책은 ‘①탄소저감, ②경제활성화, ③일자리창출, ④환경정의’라는 4가지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12) Pomona City는 캘리포니아주 클레어몬트에 위치한 도시, 이 내용은 앤드류 슈왈츠(2019)의 내용을 정리

13) 공감은 개인의 동정적 반응으로 묘사되지만 개인 수준에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도시와 공동체의 공감능력에 주목

하는 다면적 정책임

- LGP 프로젝트는 공감 문화의 정의, 평등, 존중을 기반으로 한 재생 에너지 발전 및 소비와 지속 가능한 경제적 발전을 위해 저소득 지역에 비영리 태양 전지판 공장(비영리 제조회사가 사업주체)에 투자하였음¹⁴⁾
- LGP 프로젝트는 에너지와 경제구조에 대응하여 자연의 상용화나 이윤창출을 위한 환경위기의 사업화가 아니라 시민과 사회적 소외계층의 웰빙에 목적을 두는 전환사회 정책임

- 둘째, 공감도시 전환사회 실천전략은 ‘도시농업과 공간문화 프로젝트’로도 구체화 되고 있음
 - 도시의 많은 지역에는 영양가 있는 적절한 가격의 음식이 제한적이라는 이른바 ‘먹거리 황무지(food desert)’인 상황에 주목하였음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먹거리 판매는 이윤창출을 극대화 할 수 없기 때문에 저소득 지역은 먹거리 황무지가 되었음
 - 이에 지역 리더들은 ‘공감도시가 스스로 먹거리를 생산하자’는 방향을 세우고 ‘농부와 철학자 프로그램’을 구상하여 조직해 나가기 시작했음
 - 도시가 안고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먹거리 문제에 ‘농민·철학자·공동체 리더’ 등이 협동하여 도시농업 전략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4. ‘전환사회’를 위한 지역의 대응과 방향

(1) 대응방향

- 우리사회가 전환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간이 이룩해온 문명사회 틀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정책¹⁵⁾에 대한 관념이 생태학적 위기가 일상화된 시대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는데, 정책은 정치과정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임¹⁶⁾
-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 생태 패러다임에서 생태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하며, 그 핵심은 ‘인간 중심주의에서 탈인간 중심주의로, 선형적 인과관념에서 순환적 인과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정책지향을 ‘지속가능한 개발’에서 ‘지속가능한 삶’으로 바꾸어야 함
 -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은 개발 위주 정책 비판의 결과로 이는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을 의미함
 - 지속 가능성의 기준은 절대적일 수 없다는 한계가 있고, 여전히 개발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개발주의를 정당화하는 모순적 개념으로 지적되고 있음

14) 도시 전체에 미치는 문화적인 영향력은 큰데, 저소득층 가정에 6천여개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고 지역주민 200명 이상을 고용하며, 매년 650만 달러의 에너지 비용 절약을 기대하고 있음

15) 그동안 정책은 자연정복과 개발로 성장의 과실을 주는 데 초점이 맞춤. 정책개발은 과학적 지식과 기술적 능력에 근거할 때 신뢰성과 타당성 갖는 것으로 이해되었음

16) 이 내용은 임의영(2018)에서 정리

코로나 19, '전환사회' 를 향한 방향과 과제

- 개발이 발전을 가져온다는 선형적 접근에서 벗어나 생태적인 균형과 사회적 평등을 전제로 하는 '지속 가능한 삶'을 지향하는 정책으로 전환이 중요함
- 둘째, 정책선택 원리를 '최선 중 최선에서 최악 중의 최선'으로 바꾸어야 함
 -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대안을 선택하는 의사결정 정책모델(극대-극대전략, maximax strategy)은 인간이 완전하게 합리적인 존재라는 전제위에 가능한 것임
 - 정책이 가져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태적인 영향 모두를 고려하여 최선의 선택은 불가능하며, '최악 중의 최선(best of the worst)'을 선택하는 극대-극소전략(maximni strategy)이 현실적일 것임
 - 이를 위해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따라 과학적으로 완벽히 증명되지 않았어도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다고 가정하여 불확실성과 원초적 입장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
- 셋째, 정책개발 기제를 '관성적 사고에서 생태적 상상력'으로 바꾸어야 함
 - 정책 개발과정에서는 지식과 상상력이 동원되는데, 상상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사회, 개인의 다양한 사고의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함
 - 당면한 문제를 현재의 상태와 미래의 상태라는 '시간적 맥락'에서 파악하고 더 나은 상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정책을 개발해야 함
 - 정책 개발은 당면한 문제를 '공간적 맥락'에서 보는데, 의미가 부여된 공간으로서 장소는 물리적 장소, 사회적 장소, 생명권 등으로 다양함
 - 정책 개발은 상이한 시간과 공간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뤄지는데, 도시와 농촌의 시간-공간이 다르듯 시공간의 차이를 확대해서 사고해야 함
- 넷째, 정책을 선택하는 정치를 '제도정치에서 하위정치'로 전환해 나가야 함
 - 전환사회가 지향하는 사회적 비전은 정치로 구현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현대사회 정치체계(대의 민주주의)에 반영해야 함
 - '정치는 삶의 조건을 구조화하고 변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로 전통적 정치를 보완하는 '하위정치(sub-politics)'로 삶의 조건을 바꿔야 함
 - 하위정치는 지역사회와 공동체 등이 결정하는 직접 정치적 틀을 가지는데, 소극적 방식(기업 등의 참여)과 적극적 방식(시민사회 운동) 등이 그것임

〈전환사회를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구 분	전통적 정책	(전환)	전환사회 정책
정책의 지향점	지속가능한 개발	→	지속가능한 삶
정책선택 원리	최선 중 최선	→	최악 중 최선
정책개발 기제	관성적 사고	→	생태적 상상력
정책선택 정치	제도정치	→	하위정치

자료 : 임의영(2018)에서 작성

(2) 중점과제

• 첫째, 전환사회를 위한 ‘사회규범’으로 ‘지속가능 전환사회 기본조례’ 제정

- 전환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을 위해 전라북도 차원의 ‘정치, 경제, 산업, 사회, 교육, 생활’ 등에 관한 사회체계의 전환을 지향하는 종합적인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사회 체계 전환방향과 내용을 마련
- 조례의 주요내용
 - (목적) 자연환경 등 생태의 지속가능한 유지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
 - (정의) 전환사회 지향가치와 목적을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¹⁷⁾와 결합 정의
 - (범위) 환경·교육·농업·건축·교통·복지·지역경제 등의 분야, 여성·노인·어린이·영유아 등 대상
 - (의무) 공공기관의 역할, 도민의 역할, 관련 주체의 역할 등
 - (계획) 지속가능 전환사회 기본계획 수립·실행,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마련
- ‘지속가능 전환사회 기본조례’를 기준으로 지역사회 전반의 전환사회로 이행을 위해 도민생활을 지원하고 규정하는 각종 관련 조례를 생태 친화적으로 개정

• 둘째, 전환사회로의 진전을 위한 ‘주민자치’ 프로젝트의 선도적 추진

- 전환사회의 핵심가치인 ‘참여 민주주의’를 통해 문명의 생태화를 추진할 수 있는 핵심 프로젝트 추진
- 전환사회 선도 시범지구 선정 및 지원 (가칭, 전환도시 시범 프로젝트)
 - 생활권(읍·면·동, 농촌은 몇 개 면을 통합) 단위
 -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토론과 공론화를 통한 협치 방식으로 추진
- 주민자치 시범 프로젝트 지구 지원
 - 주민 토론과 활동지원을 위해 활동가를 파견하고, 장기적이며 단계적 방식으로 주민 참여형 사업을 지원
 - ① 학습-소규모 조직-공익활동-재학습-재조직화-지역활동-창업’ 등의 선순환 방식
 - ② 최소 5년 지원, 직접 지원보다 여러 분야 사업의 패키지화
 - ③ 민간의 자율성을 증대하는 시민 자산화 도입
- 주요내용 : 영국 토트네스 전환도시 사례를 참고하여 ‘소지역 단위 전환사회 실천 프로그램’ 추진
 - 시범지구의 사업을 모델로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방안 모색
 - ‘지역재생’ 개념으로 시군 확대, 시군 단위의 전환사회를 위한 소셜 플랫폼 기능

[관련사례] 독일 ‘에컨퍼어데(Eckernförde)’는 자연과 경관보호를 바탕으로 멸종위기 동식물을 비롯한 생물의 서식처를 고민하고, 자연체험 공간·휴양, 여가시설을 만들어 경관생태계획의 성공적 도시로 평가

• 셋째, 전환사회의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학교교육’의 적용과 ‘사회교육’의 확대

- 전환사회로의 사회적 실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초중고 ‘학교교육’ 단위에서 ‘전환사회’ 관련 교육체계를 도입하고 실행
-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적용하고, 전환사회 학교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사 양성
- 전환사회 ‘사회교육’을 확대하여 지속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생태계 원리의 이해를 바탕으로 시민의 생태소양을 높여주

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Leave No One Behind)것을 비전, 인류의 보편적 문제(빈곤, 건강, 교육, 여성, 아동, 난민, 분쟁 등), 지구 환경문제(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경제문제(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률, 대내외 경제 등) 해결을 지향, 17개 주요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구성

코로나 19, '전환사회' 를 향한 방향과 과제

는 '생태시민'을 양성하는 사회교육 확대

- 제도권 교육 밖의 여러 대안학교와 지역공동체 등에서 전환사회 생태교육을 실천하는 다양한 실천사례를 장려하고 촉진하여 '전환사회 네트워크'를 유도

[관련사례] 이탈리아는 2020년부터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개발' 이슈를 공립 초·중·고교 의무교육 과정 포함

• 넷째, 전환사회를 위한 다양한 '생활양식' 실천 프로젝트의 도입과 장려

- 'Re에너지 실천 프로젝트' : 에너지가 모든 분야에 사용되는 만큼 빌딩·주택·교통·경제·일자리·먹거리·건강·복지·문화에 걸쳐 전 분야를 망라하는 실천 프로젝트를 조직하여 실행¹⁸⁾
- '적정기술 적용 프로젝트' : 에너지 자립 공동체 교육, 로컬 에너지 기술장인(시민)교육, 축열난방 장인교육, 농업에너지 저장기술 교육, 비전력 도구제작 교육 등 다양한 적정기술 실무교육과 제품제작·보급 확대
- '생태농업 진흥 프로젝트' : 생태농업을 진흥하기 위해 전통농법 활용한 친환경농업, 논·밭·수로·농로 등 농업자원 관리, 전통문화 계승 활동을 담당하는 것을 정책 프로그램으로 지원
- '생태관광 강화 프로젝트' : 자연 생태계가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지역자산의 보전과 생태적 이용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생태친화적 관광을 강화하는 프로젝트¹⁹⁾

<참고문헌>

강정목(2020), '도시 회복력(Resilience) 관점에서 본 코로나19',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박용남(2015), '전환도시 서울을 꿈꾸다', 세계와 도시 8.

앤드류 슈왈츠(2019), '생태문명은 어떤 모습인가', 2019 한국생태문명회의.

이유진(2013), '전환도시', 서울연구원 총서.

이창우(2015), '전환도시 운동의 세계적 확산', 세계와 도시 8.

임의영(2018), '서구 생태사상의 정책적 함의', 생태문명 생각하기, 크레파스북.

장훈교(2017), 'Transition과 전환적 사회혁신', 월간 사회혁신의 시선, 서울혁신센터

최재천 외(2020), '코로나 사피엔스', 인플루엔셜.

최재천(2020), '호모 심비우스, 이기적 인간은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음.

한윤정 외(2019), '백년 프로젝트'(http://thetomorrow.kr)

홍덕화(2018), '전환적 사회혁신과 고령사회 대응-도시 녹색 공유재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Avelino et al(2014), 'Game Changes and Transformatives Social Innovation: The Case of the Economics Crisis and New Economy', TRANSIT working paper.

Jacqi Hodgson Rob Hopkins(2011), 'Transition in Action: Totnes and District 2030, An Energy Descent Action Plan', Green Books.

18) 전환사회로 진전은 화석 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에너지 저감'과 '재생 에너지 대체'가 핵심적 실천 수단

19) 전라북도 가 기 구축해 운영 중인 '생태관광, 천리길, 지질공원' 등의 자원을 적극 활용 강화연계, 세계생태관광협회(TIES)와 연계한 국제 생태관광 네트워킹 구축 및 활용 등을 검토할 수 있음



ISSUE BRIEFING
2020. 11. 10 Vol. 233


전북연구원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Tel 063-280-7100 Fax 063-286-9206

발행인_김선기

발행처_전북연구원

※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